

개를 먹는 행위와 그 합법화에 반대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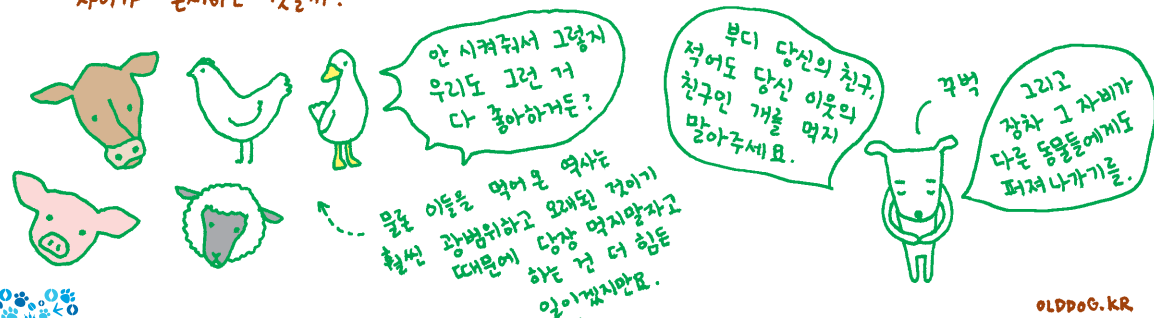


하지만 만약 엄청 평화롭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할 수 있다고 해도, 불로장생의 명약분이 있다고 해도 결국 개를 잡아먹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소와 돼지는 어떨까? 닭과 오리와 양은 어떨까? 개와 그들 사이에는 문명을 가를 만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부탁해보기로 했다.



OLDDOG.KR

한가게 로 나누는 사랑 312

Special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에서 방류까지

생명존중 캠페인

개 식용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황인숙의 생명 에세이

그것은 꿈이었을까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동물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브랜드
그리니치 뉴욕

CONTENTS

03 **여는 글**
여러분들 덕분에 돌고래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04 **Special**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에서 방류까지

16 **현장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18 **세상 읽기**
동물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 **견생역전**
“사랑아, 밥 먹자!” 이 한 마디가 이어준 인연

22 **생명존중 캠페인**
개 식용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24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동물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브랜드
그리니치 뉴욕

25 **입양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 짝새 남매들

26 **황인숙의 생명 에세이**
그것은 꿈이었을까

28 **활동소식**
4월부터 6월까지 동물자유연대 활동소식

30 **행당포토뉴스**
땡그란 눈의 작은 천사, 햄스터 친구들과 인사 하세요

31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32 **올드독 동물기**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2013. 여름호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3년 0월 00일 **편집·진행** 조지희 **교정** 강은하 **표지사진** 이룸학인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디자인·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인쇄** 세원정밀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종이 및 친환경잉크를 사용합니다.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

www.animals.or.kr

여는 글

여러분들 덕분에 돌고래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글 조희경 대표

2013년 우리는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동물자유연대 회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그것은, 7월에 한국 최초의 동물복지형 동물보육원이 완공된 것과 아시아 최초로 공연장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제가 2004년에 영국 런던에 있는 Battersea Dogs & Cats Home을 방문하고 돌아와 우리 단체 홈페이지에 그곳을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에 회원님들께서는 동물보호소 건물과 시설에 대해 놀라워하며 ‘저것이 보호소라는 말인가!’ 하고 탄성을 지른 분도 있었습니다. 늘 사료 부족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건물은커녕 급식비 자립조차도 못하는 한국의 동물보호소 현실로 볼 때 반듯한 건물은 꿈과 같은 일이었지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물보육원을 지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부담감이 늘 무겁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보육원 짓는 일에 더 힘을 실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이 보육원은 단지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복지센터라는 한정된 의미가 담긴 곳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입체적인 동물복지센터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건물입니다. 우리의 동물복지센터는 이어서 제2, 제3의 동물복지형 보육원들의 건립을 희망하게 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7월 18일에 남방큰돌고래들이 비좁은 쇼장을 벗어나 힘차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잡혀와 4년 동안 시끄러운 공연장에서 죽은 생선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쇼를 하며 살아야 했던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동물자유연대가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인데 바다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인간중심적 생각이었다는 것이 삼팔이에 의해 먼저 증명되었습니다.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가 성산항에 마련된 임시훈련장에서 살던 중, 6월 22일에 바위에 걸려 찢어진 그물 사이로 삼팔이가 훈련 가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3~4시간을 주변에서 배회하던 삼팔이는 출항하는 배를 따라 ‘선수파타기’를 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선수파타기’란 운항하는 뱃머리가 일으키는 파도를 따라 돌고래가 유영하는 것으로써, 돌고래들이 배가 운항할 때 발생하는 물살의 힘에 의지해 유영을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연장 수족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삼팔이가 동료들과 잘 합류했는지 찾아보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만났던 돌고래들도 제가 탄 뱃머리에 와서 오랫동안 선수파타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삼팔이가 4년 동안 수족관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출항하는 배를 따라 선수파타기를 하며 야생으로 돌아갔으니, 삼팔이가 동물의 야생성은 그리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앞에서 증명한 셈입니다. 이후 6월 27일에 삼팔이가 야생의 무리와 합류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은 동물자유연대 회원님들이 해낸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으면 이들은 또 다른 수족관으로 옮겨지고 감금돼,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동물들에게 주어진 열악한 현실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현실 속에서 늘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초심을 부여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공연 돌고래의 자유를 향한 734일의 기록

2013년 7월 18일,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연 돌고래 2마리가 자유를 향해 힘찬 돌음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던 제돌이(수)와 제주 퍼시픽랜드에 있던 춘삼이(암)입니다. 이에 앞서 6월 22일에 3개월가량을 춘삼이와 함께 방류 훈련을 받던 삼팔이(암)가 예기치 않게 훈련장을 이탈했지만, 6월 27일에 야생 무리에 합류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 모두를 박수로 응원합니다!

자유여! 자유여!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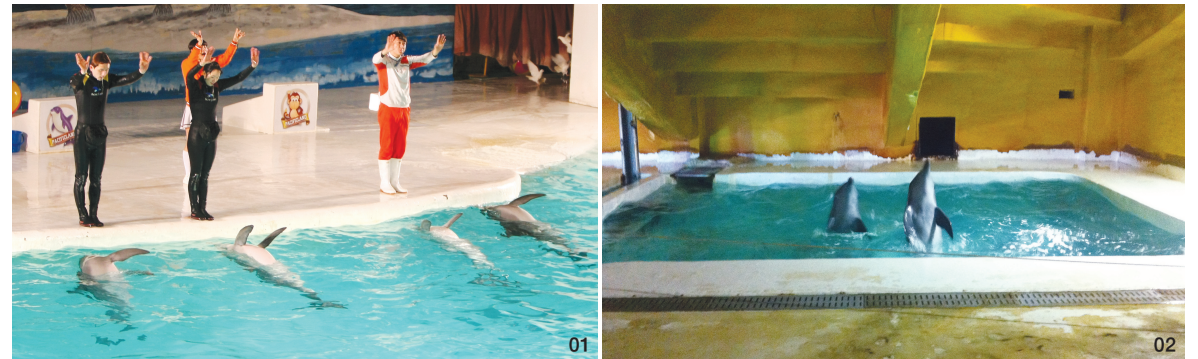
바다 입수에 성공한 퍼시픽랜드 돌고래

세기의 재판, 돌고래에게 자유를 주다

2013년 3월 28일은 약 21개월을 끌고 온 남방큰돌고래 불법 포획 사건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고 돌고래들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준 날이다. 범법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분은 물론이거나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한 몰수도 함께 확정되었다. 재판을 통해 공연장 돌고래들에게 자유를 준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사건이다.

그보다 1년 앞서 2012년 3월 12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공원 돌고래 쇼 공연장에서 제돌이 방류와 더불어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후 우리 사회는 돌고래 방류를 놓고 한바탕 찬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논란의 주인공인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약 11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2012년 10월 16일에 해양수산부(전 국토해양부)로부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동물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 규제를 받는 CITES 부속서2에 해당하는 국제 보호종의 하나다.



01 퍼시픽랜드 공연 사진 02 퍼시픽랜드 돌고래 보관시설

남방큰돌고래 공연장 잔혹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 남방큰돌고래들은 제주 인근 연안의 야생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돌고래들이었다. 돌고래는 하루에 약 160 킬로미터 이상 드넓은 바다를 누비며 다닐 수 있는 동물이다. 그런 돌고래들이 겨우 30x50미터 정도의 좁은 수조 안에서 죽은 생선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쇼를 한다. 동물 쇼에서 막이라는 것은 동물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이다. 훈련사의 지시에 따르는 동물의 행동은 극한의 생존 방법인 셈이다.

2011년 7월 14일에 해양경찰은 어망에 잡힌 남방큰돌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공연장에 유통시킨 어민과 제주의 동물 쇼 업체 퍼시픽랜드 관계자들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죽은 고래는 발견자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취득할 수 있으나, 고래가 혼획 당시 살아있는 상태면 바다로 되돌려 보내야 하고 임의로 취득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퍼시픽랜드가 남방큰돌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온 일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해에 처음으로 반입한 해돌이를 1995년에 서울대공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돌고래 유통도 시작되었다. 이후 퍼시픽랜드는 26마리의 남방큰돌고래를 쇼에 이용하거나 다른 공연장에 넘겨왔다. 26마리 중 불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이 효력을 발휘한 2009년 5월 1일 이후 취득한 11마리다. 11마리 중 4마리는 해양경찰에 적발되기 전 퍼시픽랜드 내에서 죽었고, 7마리는 서울대공원으로 넘겨진 제돌이들이다. 기소 당시 퍼시픽랜드 내에 있던 8마리 중 6마리가 불법 취득된 돌고래들이었다. 이 중 이름 없는 암컷 한 마리가 2011년 10월에 죽었고 해순이는 2심 재판을 기다리던 중 죽음에 이르렀다. 결국 춘삼이(암), 삼팔이(암), 복순이(암), 태산이(수)만 몰수할 수 있었다.

제돌이 방류, 반대 진영에 맞서다

“제돌이가 구럼비 앞바다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012년 3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겠다는 발표를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구럼비’라는 용어 하나가 제돌이의 존재를 순식간에 정치적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다. 2012년 3월 당시 한국 사회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쟁이 뜨겁던 시기다.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발과 작업이 진행되면서 파괴된 구럼비는 해군기지건설 반대의 상징적 존재와도 같았다. 찬반 양측 모두가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터라, 박원순 시장의 구럼비 언급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보수 언론들의 날 선 비난으로 인해 동물을 쇼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을 편파하거나 돌고래 방류에 대한 사실 정보마저도 왜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겨레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들이 돌고래 방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사에 시민단체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더불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SNS를 통해 돌고래의 생태와 동물 쇼의 잔인성 등을 알리는 등 대시민 캠페인에 주력하며 맞서나갔다. 돌고래 전시가 교육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깨고 돌고래들을 그들이 살던 본연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기울인 덕에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어갔다. 2013년 2월에 KBS <환경 스페셜>이 KBS 방송문화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의 1,316명의 응답자중 1,001명(76.1%)이 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는 215명(16.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명(7.6%)이었다. 반대하는 215명 중 95.1%는 사육 환경에 길들여진 돌고래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즉 반대하는 사람들도 야생방사 비용의 문제가 아닌 돌고래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대답한 것이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제돌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방류가 결정되었으나 퍼시픽랜드의 돌고래들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물자유연대와 남방큰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재판부에 부담을 주기 위해 돌고래 몰수 및 방류를 요청하는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비롯해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했다. 재판 진행 중 정부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퍼시픽랜드 돌고래들의 방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퍼시픽랜드 돌고래들을 제돌이 방류 훈련장(가두리)에 합류시키는 방안을 모색했고, 서울시에 구성된 '제돌이 방류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제돌이가 친구들과 함께 훈련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 하에 합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 퍼시픽랜드 돌고래들 방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이 비용까지 서울시가 부담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 남구청 장생포 수족관으로 보내는 것만을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했다. 어렵게 자유를 획득한 돌고래들이 다시 수족관으로 보내질 처지였다. 결국 비용을 시민의 힘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심 끝에 돌고래들에게 자유의 자켓대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세기의 재판에 이어 공연 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한국 동물운동사에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동물자유연대 후원회원들에 의해 가능케 된 순간이었다.



방류 훈련을 받기 위해 바다 가두리로 옮겨지는 퍼시픽랜드 돌고래

자유를 위한 준비들

2013년 4월 8일에 퍼시픽랜드 돌고래들 4마리가 최종적으로 몰수되었다. 당시는 아직 제돌이 방류 훈련장이 마련되기 전이라 4마리 중 춘삼이와 삼팔이는 성산항 내 임시 가두리로 옮겨졌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복순이와 태산이는 건강 회복 후 방류를 조건으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쇼를 하는 돌고래들은 죽은 냉동 생선만 먹고 살아왔다. 야생으로 돌아가려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본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관건이었다. 성산항 가두리로 보내진 춘삼이, 삼팔이에게 일단 활력을 감소시킨 고등어가 던져졌다. 점차 활력이 좋은 고등어를 주는 방식으로 적응시켜나가며 방어, 오징어, 전갱이 등 제주 바다에서 자생하는 자연산 활 어들을 급식해나갔다. 공연장에서 사람에게 의존했던 버릇과 기억을 없애는 것도 주요 과제였다. 바다로 돌아간 후 사람에게 가까이 오려다 또 그물망에 걸리거나 배를 따라다니며 먹이를 구걸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방류가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무리에 섞여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해나가 것은 중요하다.

2013년 5월 11일, 제돌이가 제주 성산항 임시 가두리로 옮겨졌다. 한 달 먼저 온 춘삼이, 삼팔이와 제돌이는 적응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방류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제돌이는 곧 먹이 사냥에도 능해졌다. 던져진 먹이 중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먼저 잡아먹고 느린 물고기는 천천히 먹는 영민함도 보였다. 배가 부르면 죽은 물고기를 가지고 노는 여유도 보였다. 해초를 주둥이나 지느러미에 달고 다니는 놀이도 즐겼다.

스스로 길을 찾은 삼팔이

그러던 중 6월 22일 아침에 삼팔이가 그물망을 이탈했다. 풍랑에 흔들린 그물망이 바다 속 바위에 찢겨 구멍이 난 틈으로 나간 것이다. 그물망을 벗어난 삼팔이는 3~4시간가량을 가두리 근처에서 머물러 있었다. 서울대공원 훈련사와 퍼시픽랜드 훈련사가 와서 공연 시 사용하던 신호를 보내 불러들이려 했으나 삼팔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산항에서 출항하는 배를 따라 선수파타기(돌고래가 운항하는 뱃머리에서 일어난 파도를 따라 유영하는 것으로 이 때 돌고래는 물살의 힘에 의지해 유영을 즐긴다)를 하며 우리 곁을 떠났다. 오랫동안 잠재워졌던 야생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후 6월 27일에 제주 모슬포 부근에서 삼팔이가 야생 무리와 합류한 것이 발견되었다.

제돌이와 춘삼이는 2013년 6월 26일에 본 훈련장인 감녕 가두리로 이동됐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과정이었다. 감녕 바다의 물살은 성산항보다 거셌고 물도 깊었다. 풍랑 등 날씨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돌고래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이어서 동료들과의 교신을 기대하는 지역이었다. 감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돌이와 춘삼이는 위성추적장치에 더해 등지느러미에 문신과도 같은 동결표식을 새겼다. 제돌이는 1번, 춘삼이는 2번이다. 위성추적장치의 수명이 약 6개월가량이고 수명이 다할 즈음에 부식으로 인해 탈락되는 반면, 동결표식은 성체의 경우 10년가량 알아볼 수 있어 장기 모니터링 방법으로 사용된다. 야생으로 돌아간 공연 돌고래의 모니터링은 추후 공연 돌고래 해방 캠페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혼획 시 어민들에 의해 쉽게 판별될 수 있어 불법 빼돌림에 대한 경각심도 줄 수 있다.

2013년 7월 18일 오후 3시, 마침내 제돌이와 춘삼이에게 자유의 문이 열렸다. 두 돌고래는 우리를 울고 웃게 한 지난 734일을 뒤로 하며 멀리 멀리 힘차게 나아갔다. 그들은 전국의 수족관에 있는 해양동물들에 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남기고 돌아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또 다시 시작이라고..

이제 막 방류를 한 시점이라 돌고래들의 야생 적응 여부는 3개월 이상 지켜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가 고향에서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크레인에 들려 이송되는 퍼시픽랜드 돌고래

동물 사랑, 모두의 마음속에 있지만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취재 조희경 정리 이형주 팀장 정책기획국

2012년 3월, 서울대공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포획 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을 때,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동물 보호’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1990년대에 ‘동물권’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을 정도로 생명 윤리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훗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한 청계천 말마차 폐지, 동물보호과 신설 등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번 돌고래 방류가 박원순 시장이 그리고 있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도시’라는 큰 그림의 첫 획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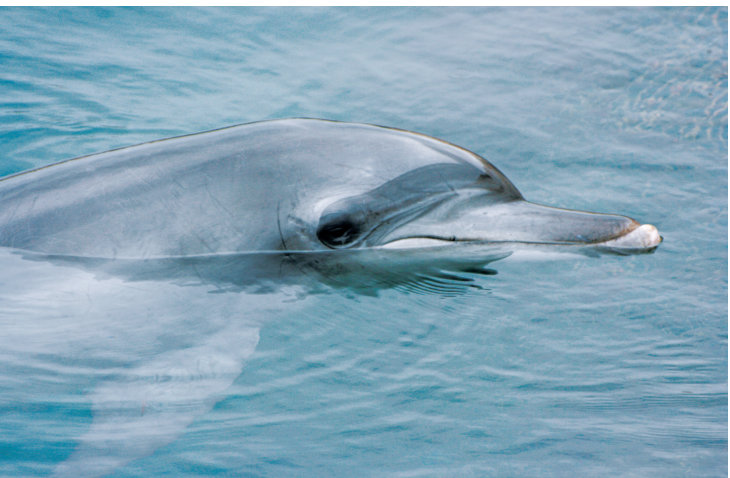
제돌이의 귀향을 결정한 지 1년이 지나 어느덧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갈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감이 어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처음에는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돌이의 귀향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우리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선진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돌고래 쇼를 보고 싶어 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돌고래를 바다로 되돌려 보내는 일에 서울시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높아진 것은, 서울 시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 못지않게 자연과 생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시장의 결단이나 서울시 직원들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이다 함께 이룬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건이다. 특히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의 역량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울의 모델’, ‘서울 스타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내가 이번 일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 여사, 돌고래 보호 활동가 릭 오배리 등 환경운동가들이 서울을 찾았고, 특히 릭 오배리는 시장님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또 방사를 하라고 자꾸 압력을 주시는 것 같다. (웃음) 세상의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1차 세계 대전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뒤에는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랫동안 돌고래 방류에 대한 동물단체의 주장이 있었고, 나 역시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 1990년에 유학하면서 동물권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당시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책을 읽었고 논문도 하나 썼다. 사실 우리 한민족이 예로부터 동물을 삶의 반려자로 생각해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내 어머니도 ‘미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셨다. 우리네 삶에 녹아 있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꾸 잊히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동물원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서울대공원도 최근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것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물원은 문화시설 이전에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동물



위 삼팔, 춘삼 아래 제돌

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대공원이 우리나라 동물원 현실의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의 아사히아마 동물원에 대한 책을 읽었다. 동물원 재정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동물원장과 직원들의 새로운 발상으로 동물들을 살아 숨쉬게, 즐겁게 만듦으로써 다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의 동물원이 서양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다른 대륙과 나라를 침략해 사람과 동물을 빼앗아 강제로 전시하는 전시장의 역할을 모방한 것이었다면, 현대는 종 보존과 종 다양성에 대한 연구,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생명의 신비감을 느끼고 동물과 상호 소통을 꾀하면서 인간이 치유 받는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서울대공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다른 동물원도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동물보호과’는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과거에는 민간단체의 활동에만 의존해야 했던 동물 보호에 대해 드디어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려 한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시장 한 명의 의지로 만든 결과가 아니다. 동물보호과와 동물복지위원회는,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 시민 대표들이 가진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하나의 플랫폼인 셈인데, 그 플랫폼을 만들어 드린 것이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과 관계를 맺고 사는 서울 시민의 숫자가 많아졌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이 동물 정책을 만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서울시,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분담해서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

아직도 ‘동물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도 많다. 동물보호인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비효과’라는 이론이 있다. 중국 북경에 사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 폭풍을 몰아온다는 것인데, 생태계에서는 정말 어려모로 적용되는 놀라운 이야기다. 한 종이 사라지면 인간의 삶도 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이를



사진캡션추가

바로잡기 위해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등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지만, 종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비단 과학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서울시가 백 걸음, 천 걸음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열심히 따라가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나.

많은 시민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을 보고 시장님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대박이’의 소식을 궁금해 한다.

한 살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이 컸다.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더라. 어떤 때는 서로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놀다기도 슬며시 가버리는 데 그러면 피곤해서 그러는 건지 이유를 몰라 걱정도 된다. 잠을 아주 신나게 잘 잔다. 너무 많이 자서 몸이 안 좋은지 걱정이 돼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 ‘서울’, ‘희망’, ‘대박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 희망도 대박나고, 서울도 대박나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대박이가 겁이 많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 다들 것 없는 서울이, 희망이의 간식도 뺏어 먹는데 밖에 데리고 나가면 도망 다니기 바쁘다. 집안에서만 웅맹스럽다. (웃음)

마지막으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에게 한 말씀만 해 달라.

제돌이 귀환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고래 쇼를 보는 즐거움 대신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들이 자유롭게 유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기쁨을 선택하고 이번 일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이 자랑스럽다. 이 일에 앞장 서 준 동물자유연대 회원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은 거대도시 서울시의 최고 수장이지만, 반려견 이야기를 할 때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반려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시콜콜 털어놓는 어느 ‘강아지 아빠’와 다를 바 없었다. “다음에는 제돌이 인터뷰를 해 달라. 나한테 할 말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며 사람의 삶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삶도 녹록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평소보다는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사진캡션추가

제돌이의 귀향, 그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들

글 이형주 팀장 정책기획국

2012년 2월, 처음으로 퍼시픽랜드에 갔던 날을 기억한다. 귀청이 떨어지나갈 것만 같은 소음 속에서 돌고래들이 공중제비를 하던 퍼시픽랜드와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던 푸른 중문 바다는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있었다. 저 바다에 아직도 이 돌고래들의 가족이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딘가에 울먹이며 큰소리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수족관에 남겨진 돌고래들과 새로 수입되는 돌고래들

아직 우리나라에는 27마리에 달하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있다. 서울대공원만 해도 1999년과 2002년에 제주도에서 잡혀온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 일본 다이지에서 들어온 큰돌고래 태지를 비롯해, 삼팔, 춘삼이와 함께 몰수되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주에서 이송된 복순, 삼팔이 등 총 다섯 마리의 돌고래가 남아 있다. 이중 복순, 삼팔이는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하루 빨리 제주 바다로 옮겨 적응 훈련을 받게 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월 돌고래 적응훈련 자문을 요청받아 서울시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돌고래 방류 전문가 릭 오베리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을 관찰한 뒤 “이 수족관에 갇혀 있는 한 돌고래들에게 희망은 없다”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 외에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아쿠아플라넷, 제주 마린파크에도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가 좁은 콘크리트 수족관에서 쇼에 동원되고 있다. 작년에만 해도 서울대공원, 제주 마린파크,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세 곳에서 사육되던 돌고래들이 수족관 안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고 말았다.

수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수족관 안의 돌고래들에게 바다에서의 삶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돌고래 체험시설이 생기고 있다. 거제시가 민자 유치산업으로 건립 추진 중인 ‘돌고래와 수영하기’

체험시설인 거제 돌핀파크가 그것이다. 이미 체험장 착공이 시작되기도 않았는데도 벌써 지난 5월 일본에서 네 마리의 야생 큰돌고래들이 수입돼 순치장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제주 아쿠아플라넷을 지은 대기업 한화그룹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에 새로운 돌고래 전시장을 짓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사진캡션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망에 걸리는 고래, 돌고래들

운 좋게도 아직까지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다의 돌고래들에게도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 연안에만 57개의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다. 정치망이란 방 한 칸 크기 정도의 네모난 어망으로, 그물에 테와 깔때기 장치를 한 어구를 설치해 물고기가 들어가는 쉬워도 빠져 나오기는 어렵도록 설치된 도구이다. 제돌이를 비롯한 남방큰돌고래들은 바로 이 정치망으로 들어가는 물고기 때를 쫓다가 어이없게도 수년을 수족관에서 보내게 되었다. 지금도 한 해에 평균 열 마리에 가까운 남방큰돌고래들이 정치망에 혼획 된다. 2009년 기준 114마리로 추정되는 전체 개체 수의 약 10%에 가까운 숫자다. 지난 5월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한꺼번에 정치망에 걸렸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으나 다행히 어민들의 도움으로 이미 방류된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7월에 방류된 제돌이도 다시 정치망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선과 대안이 하루빨리 모색돼야 한다.

사실 혼획 문제는 동해 바다에서 훨씬 심각하다. 일본과 함께 혼획을 세계 1,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800마리에 달하는 고래가 혼획 된다. 특히 연간 80두가 넘게 혼획 되는 밍크고래는 ‘제이 스타(J-stock)’으로 불리는 멸종위기 개체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이하 CITES)’에서도 부속서 1로 분류해 국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밍크고래와 같은 대형 수염고래류는 맛이 좋아 큰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망에 걸렸을 때 방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고래가 익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의도적 혼획’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고래보호를 위한 규제와 어민교육이 필수

바다에 남아 있는 돌고래들을 지키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있다. 첫째로, 전사를 목적으로 한 고래류의 수입과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행동반경이 넓고 지각 능력이 뛰어난 돌고래는 사육에 가장 부적합한 야생동물 중 하나로 꼽힌다. 모든 고래류는 CITES 부속서 2에 속하는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물이다. 이미 1993년에 마지막 수족관이 문을 닫은 영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소속 34개 국가들, 칠레, 코스타리카 등에서는 수족관 전사가 법으로 금지되었고, 지난 5월 인도에서도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전사가 금지되었다. 이번 제돌이의 방류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돌고래 쇼가 비인도적, 비교육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건을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지의 증거로 여기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정부 기관의 주도로 사육 돌고래의 야생 방류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돌고래 전시장의 오픈을 금지시키는 일은 자연스럽게 밟아 나가야 할 수순으로 보인다.

둘째, 혼획을 막고 어망에 걸린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도는 어민이 자율적으로 어구에 걸린 돌고래를 풀어주려 할 때, 함께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손해 보면서까지 방류를 해도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이 상황은 고래 개체군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민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셈이다. 죽은 고래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관행을 없애고, 살아 있는 고래류를 구조했을 때는 구조에 들인 공과 어구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방류를 위해 노력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남방큰돌고래의 성공적인 방류 역시 어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돌고래들이 어망에 걸렸을 경우 즉각 구조, 방류할 수 있도록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 이번 방류가 고래류에 대한 어민의 인식을 ‘바다의 로또’가 아닌 ‘보호해야 할 귀중한 자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시민단체뿐 아니라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돌고래를 바다에 있게 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돌이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정은 돌고래 한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구름이 하늘에 있고, 나무가 산에 있는 것처럼 ‘돌고래는 바다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적 돌고래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했던 사실을,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깨우쳐야 할 때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글 이형주 팀장 정책기획국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는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와 화장품 산업계,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감안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도출해 내기 위한 자리였다.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 이미 세계적으로 금지 추세

이번 토론회에는 영국 전 하원의원이자 동물보호반대단체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의 정책 전문가 닉 팔머(Nick Palmer) 박사가 참석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3월 11일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수입 판매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팔머 박사는 유럽에서 단계적으로 실행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의 사례를 들며, 10년에 걸친 과정 동안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대체실험법의 사용이 보편화된 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수입되는 제

품에 대해 자국 정부에 동물실험을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OECD에 등록된 대체실험법을 도입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예외사항을 두는 방법으로 국내에서의 금지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지해도 된다’는 산업계와 ‘아직 이른다’는 정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화장품 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14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원료를 추가할 시에는 안

정성에 대한 검증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언제라도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지적했다. 중국 등 동물실험을 의무화하는 국가에 수출할 경우와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새로운 원료를 추가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 등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팔머 박사도 많은 부분 공감했으나, 신원료의 필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도 최근 동물실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미하게나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식약청의 동물대체실험법 검증 평가 예산이 최초로 일반사업비 형식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토론회에 정부 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정책과와 특수독성과 담당자는 아직도 기대만큼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샀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는 대체실험법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시험 시설, 실행 가능한 인력 등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동물실험을 금지했을 경우 신제품과 신원료 개발이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이미 동물실험을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율에 맡겨 두는 상황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의지 부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동물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정책 수립은 산업계와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데 이용돼야

19세기 이후 산업화가 가져온 과학기술의 발전은 화학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를 실험하는 동물 실험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도 화학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지를 검증할 수 있는 대체실험법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화장품 원료가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 과거에는 털을 민 토끼나 가나피그의 피부에 물질을 바르는 방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시험관에 배양된 인간의 피부 세포를 사용한다. 약품에 대한 동물 피부의 반응이 아닌 ‘사

람 피부’의 반응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토끼의 눈에 화학 물질을 주입하는 대신 이미 도축된 소의 안구를 사용하는 BCOP 테스트나 부화가 덜 된 유정란이 든 시험관에 물질을 떨어뜨리고 혈관의 반응을 관찰하는 HET-CAM 테스트를 사용한다. 또한, 이미 예전에 동물 실험 혹은 비(非)동물실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만 해도 수 만 가지에 이른다. 이미 검증을 거친 원료를 다양하게 배합해도 충분히 성능이 좋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과연 다른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피부가 좀 더 좋아지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일인지도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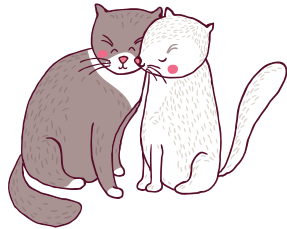
분명 넘어야 할 산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대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희생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는 동의된 전제 하에,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들끼리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협력하면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으로 금지했다’는 뉴스를 들을 날도 머지않았다는 한 줄기 희망을 본 자리였다.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서명

동물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 김형성 사진작가, <오보이> 편집장



동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는 패션 사진을 찍는 일을 하다가 2009년에 잡지 <오보이(OhBoy!)>를 창간하고 꽤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오보이> 지면은 물론 다양한 매체의 청탁을 받아 동물 보호나 환경 문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진심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글을 읽는 대상이 동물 보호의 필요성이나 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 독자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보호의 당위성을 잘 아는 분들을 위한 글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 주제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정한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동물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동물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니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동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보살피고 그들과 삶을 같이 하며 그들이 편하게 하늘로 갈 수 있도록 곁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동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들이 어리고 귀여울 때만 예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좋아서 돈을 주고 동물을 사고, 자신들의 사정이 허락할 때까지만

동물을 키우다가 사정이 바뀌면 가족 같은 동물을 남에게 보내거나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임신을 하거나 가족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사를 가거나 피치 못 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키우던 동물을 외면하고 억지로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동물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현실이 허락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동물을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만 사정이 나아지고 여건이 허락하면 또 다른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운이 좋으면 그 동물은 죽을 때까지 주인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전 동물들이 동물에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동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고통 받는 모습을 더 자주 봐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염색을 해주고 예쁘다고 좋아하며 자신이 동물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인이 임신해서 다른 곳으로 동물을 보내버리고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도 자신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사랑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동물을 사랑하면서도 육식을 할 수 있지만 대놓고 육식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하더군요. 그저 예쁜 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농장 동물들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동물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부드러운 소통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제 주위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동물 보호 운동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 지켜보는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잘못된 소통 방식으로 인해 동물 보호의 정신을 전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겪고 결국 감정만 상하거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동물을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지만 정작 메시지는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소통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서의 설전, 현장에서의 갈등은 물론, 최악의 경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갈등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 동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동물을 음식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종종 동물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느낀 슬픔, 우리의 좌절과 고통 때문에 그들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소통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

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 받는 동물들 때문에 슬프고 힘들수록 그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에게 “당신은 야만인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나는 야만인이구나. 앞으로 보신탕을 먹지 말아야겠다. 내가 너무 나빴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강경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투쟁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는 동물 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동물을 생각하는 쪽이 영원한 약자고 아쉬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고통 받으면 아프고 슬프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신경하게 동물을 괴롭히고 보신탕을 먹으면 그만이지요. 우리와 갈등이 있다면 화가 좀 날 수는 있어도 슬프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아쉬운 건 항상 우리죠. 고통 받는 동물들 때문에 슬프고 힘들어도 그 동물들을 위해 조금만 감정을 숨기고 대화를 시도하고 부드럽게 설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를 표현하고 좌절을 숨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바옴과 동물을 더욱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많이 힘들고 화나는 일도 많지만 동물들을 위해서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사람 때문에 고통 받는 동물이 하나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랑아, 밥 먹자!” 이 한 마디가 이어준 인연

글 윤정임 국장 반려동물복지센터

강원도 양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버려진 백구가 이웃 주인에게 잡혀 목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도망을 갔다는 안타까운 제보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분명 식용의 위기에서 탈출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백구를 구조하기 위해 5차레나 강원도 양양으로 내려갔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녀석은 끝내 구조에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구의 사연을 제보하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박경숙 님께서 '구조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백구는 곧바로 동물자유연대 협력병원으로 이송되어 목과 머리의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5월 14일, 백구는 은인이고 천사인 박경숙 님 댁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다친 마음과 몸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은 후, 버린 받은 곳을 떠돌며 고통 받던 백구는 이제 '사랑아'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사랑아 입양자 박경숙 님 인터뷰 ♡

처음 상처가 심한 사랑아를 발견했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땠나요?

사랑아는 2년 전쯤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개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제가 다니는 직장 사장님께서 밥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사실 사랑아가 다치기 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밥을 먹으러 오던 사랑아가 1주일 넘도록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웃 주인이 사랑아에게 해코지를 했고 아마도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랍게도 사랑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머리와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채로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사랑아의 상처를 보고 그 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 지를 생각하니 분노가 끓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많아 경계심이 심했는데 구조에 성공하셨습니다. 비결이 궁금합니다.

의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아를 꼭 구조해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조를 결심하고 사랑아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챙겨주며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동작 하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애를 먹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아가 밥을 먹으러 들어 온 순간 구조를 하겠다는 마음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보통은 인기척에 놀라 도망을 가는데 그 날은 “사랑아, 밥 먹자!” 그 한마디에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 지금도 사랑아가 대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결심한 계기나 순간이 있었나요?

저희 집에는 사랑아 말고도 3마리의 반려견이 더 있습니다. 남편도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 처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아가 우리 가족이 되려고 그랬는지 마침 남편도 강원도로 다시 오게 되었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고민을 한 끝에 사랑아의 입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보호소로 가게 되어도 입양이 쉽지 않은 대형견이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아의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자신은 없었지만,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아가 눈 감는 날까지 지켜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아를 구조하고 입양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동물을 싫어하고 학대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다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바로는 동물들은 제대로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쏟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해코지를 하여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동물에게 다가갔을 때 얻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개 식용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글 정진아 활동가 정책기획국

개 식용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인식 또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이 나라에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법도 존재하지 않기에 무법천지의 공간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포획하고 도살하는 그 모든 것이 최악이라는 수식어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이야 금할 길 없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쫓아가서 화를 내보기도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 봐도 상황이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거운 돌만 하나 더 얹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눈앞에서 고통 받는 개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걸까요?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개 식용 관련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개 농장을 발견 했을 때

개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이 개 농장이지만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도 흔한 것이 또한 개 농장입니다. 그만큼 개 농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발견한 분들의 제보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 농장은 합법도 아니지만 단속할 법이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 농장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법은 축산관련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 농장의 경우 대부분 법망을 피해 불법 건축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 확인하면 불법 건축물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고, 그 즉시 민원을 넣어 그 시설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 농장의 경우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지 않아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농장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는 개천을 오염시키고 냄새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도 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 민원을 넣는다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개 농장 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농장을 폐쇄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의 합법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개 농장 운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 도살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이나 불법건축물 차원의 민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만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동물들도 도살이 되고 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른 개를 식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골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집에서 개를 기르고 식용으로 삼는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도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도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도축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 이렇게 해 보세요

바로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자가 도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에 의한 학대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에 관한 조항에서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거나 사진 등 증거를 확보 한 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주세요. 직접 목격이 어려운 실내 등에서 이루어진다면 소리를 녹취해서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관에게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도살에 대해 정서상 불편한 감정을 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한다면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서 자가 도살 행위를 막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운반하는 트럭을 봤다면

2012년 제주에서 있었던 이른바 제주 개 트럭 사건이 기억나실 거예요. 개들이 산다미처럼 쌓인 좁은 철창에 짐짝처럼 구겨 놓여져 고통 받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주에서만 벌어진 일기적인 사건은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와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좁은 철창에 갇혀 옮겨지는 개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렇게 해 보세요

개들이 비좁은 공간에 물이나 음식도 제대로 없이 이동 되는 경우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운송에 관한 조항에는 '운송 중인 동물에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비록 권고 조항이긴 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운송이 아니고 개를 데려다가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등록업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품건을 길에서 데려다 판매 하는 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중인 개의 출처를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고기 판매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재래시장이나 서울 외곽 등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고기만 판매하는 영업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막을 근거도 법적으로 없지만 영업 허가 자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관련 지자체에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육점 등 다른 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개고기 판매점의 경우 한 두 번의 민원으로 영업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명백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주세요. 당장의 영업은 막을 수 없지만 반복된 민원을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모든 일들, 혼자서 어려우실 때 동물자유연대에 전화해 주세요.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물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브랜드 그리니치 뉴욕

글 윤정임 국장 반려동물복지센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모피코트와 가방으로 만들어 지기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소비자가 줄어들어도, 이를 통해 수십, 수백 마리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완성 된 패션. 이제 돌아켜 보아야 때입니다. 가족을 쓰지만 동물의 가족을 쓰지 않으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공정만을 고집하는 착하고도 똑심 있는 브랜드 그리니치를 소개합니다.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리니치(GRIENICH)는 'Innovative Sustainable Design'이라는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세련된 감성을 지향하는 것이 브랜드의 정체성이며 'Less is More' 컨셉으로 과도한 치장을 지양하며 제품을 만듭니다.

또한 그리니치는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의식 있는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단순히 이익 실현만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만이 아니라 사회 윤리와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Social Value'에 대하여 깊이 고민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에서 동물의 희생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동물과 환경을 존중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비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그리니치의 디자인은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본질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줘야 하고, 상품이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니치의 제품을 착용해 보며 개발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 'Temporary'가 아닌 'Sustainability'를 최우선에 두고 상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디자인 할 때 미학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거의 모든 사물에서 영감을 받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은 'Social Change'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소비 심리 및 패턴에 대하여 집요할 정도로 관찰하고 항상 끊임없이 'Why?'라고 묻습니다.



소중한 생명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고 싶습니다.

사회 환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니치는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소중한 생명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LOVE ME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가 사회에 전하고 싶은 진심이 전달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입양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 깜씨 남매들

글 손혜원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감식



봄이



똑똑이



청아



네로



감비



주디



베티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은 아이들이 사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종이 있는 동물들보다는 혼혈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개들은 일명 '깜씨 남매들'로 불리는 까만 털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있는 행당동에는 감식이, 네로, 청아, 똑똑이, 봄이, 감비, 베티, 주디, 이렇게 8마리의 깜씨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에 있어도 한눈에 들어오는 윤기 흐르는 까만 털과 세상의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이 까만 눈동자를 보고 있노라면 사랑스러움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학대받고 버려지고 오랜 길거리 생활로 사료조차 먹지 못했던 아이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아려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리고 작고 예쁜 아이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혼혈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복지센터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예쁜 개들을 입양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항상 마음속에 있지만 이 의문 부호는 아마도 한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아직 일반인들이 보기엔 행당동 깜씨 남매들은 몸집이 크고 중도 없고 아프고 못생긴 개들일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의문 부호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행당동 깜씨 남매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것은 꿈이었을까



재작년 이맘때였다. 해방촌 비탈과 보성여고 길로 이어지는 긴 계단 밑에서 처음 보는 노란 고양이와 별 거 없어 보이는 쓰레기봉투를 뒤적이고 있었다. “야옹아!” 하고 부르니 고양이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인물은 좀 빠졌지만 울음소리가 찢어지듯 예뻐서. 공책 한 장을 찢어서 그 위에 사료 한 줌, 그리고 간식캔을 따서 얹어 내밀었다. 내 발치 가까이에 앉아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그만큼 배도 고팠겠지만, 여느 길고양이가 아닌 듯했다. 누가 기르다가 버린지 얼마 안 된 게 분명했다. 한숨을 쉬며 머리통을 쓰다듬자 ‘하악!’ 소리를 냈다. “미안, 미안!” 나는 그 고양이를 내려다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늦은 밤, 그 길을 내려가는데 예의 찢어지듯 아주 싫다는 듯 하소연하는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 고양이가 쫓아왔다. 얼른 밥을 줬더니 서럽게 흐느끼면서 열심히 먹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관계가 궁금한 듯 구경했다. 그 뒤 그 길을 그 시간 어간에 찾아가 그 고양이와 조우했다. 한 달여는 꾸준히 만났지만, 어느 덧 못 만나는 날도 생기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보게도 됐다. 이 녀석의 행동반경이 넓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잘 먹던 간식캔을 맛없어 해서 다른 캔을 주게 됐고, 점점 모양이 찌그러져지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내 발치에 앉으면서도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라두기는 똑같았다. 만약 내가 이따금이라도 곁에 오래 있어 줬다면, 조금은 더 가까워졌을 것이다. ‘그렇잖아!’ 지금은 후

회막급이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도 했고, 무의식 속에 ‘더 이상 연루되지 말자’는 이기심도 있었을 테다. 그 고양이는 그해 겨울을 살아 넘겼다. 그런데 인젠가부터 눈곱이 잔뜩 끼고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며칠 안 보일 때도 있었지만 다시 나타나곤 해서 나는 애써 걱정을 물리쳤다. 그러나 보름 넘게 눈에 띄지 않았을 때는 걱정이 태산 같아졌다. 그애는 빠쩍 말라서 나타났다. ‘밥도 물도 충분한 이 구역을 왜 떠나서 어디 갔다 온 것일까?’ 자세히 보니 이빨도 성치 않은 듯 밥 먹는 입 모양이 이상했다.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아 보였다. 아무래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가족장갑을 끼고 냇다 옆구리를 잡아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애의 공포가 얼마나 크던지 도로 놓고 말았다. 한 며칠 그 애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비실거리면서, 개는 또 한 겨울을 기적처럼 살아 넘겼다. 약간은 살이 올라서. 이번에는 진짜 그 애를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 올해 초 봄부터 무려 세 달 가까이 사라졌던 것이다. 정말 죽었나 봐. 쓰러진 마음으로 가슴 속에 묻고 있을 때, 그 애가 나타났다. 비명이 절로 나올 모습으로. 더 이상 마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몸피에, 누구한테 심하게 당했는지 볼 한쪽 살이 뜯겨 덜렁거리고, 몸통 여기저기 물어뜯긴 상처가 숭했다. 꼬리도 너덜거렸다. 꼬리 끝부터 코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다. 그 애는 힘없이 울면서 나를 반기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더니 탈진한 듯 눈을 감고 내 앞에 푹 엎드렸다. 친



구에게 이동장을 갖고 와 달라고 할 참이었는데, 휴대폰을 빌려준 청년이 119에 연락하면 잡아줄 거라고 조언했다.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건만! 구조원들이 길을 잘못 들어 도착 시간이 늦어졌고, 그 사이,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처녀가 지나갔다. 그 바람에 고양이가 자동차 밑으로 파해 들어갔다. 결국 고양이는 구조원들이 포획망을 휘젓자 사력을 다해 도망 가버렸다. “우리는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막다른 데 있는 고양이밖에 못 잡아요.” “저렇게 도망갈 힘이 있으면, 재 살 거예요.” 구조원들이 미안한 듯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작 그 고양이의 외로움을 보듬어줬으면 나 혼자 조용히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었으련만. 무참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다. 다음날,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애를 본 순간, 용서 받은 것 같은 울컥함을 독자들은 헤아리시리라. 그 뒤에 낮과 밤, 하루 두 차례 그 애를 본 지 스무 날쯤 꽤 간다. 불과 등덜미는 커다란 땀방이 생겼지만 아물었고, 뼈가 드러나서 그 끝이 꺼렇게 썩어 들어가던 꼬리에도 얇은 막이 덮였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비참하게 말랐고, 눈에는 누런 고름 같은 눈곱이 매달려 있다. 한 열흘 갖고 다니던 이동장을 그제부터 안 갖고 다닌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 어쩌면 좋을까... 오늘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어느 구석에서 죽어 다시는 못 볼 지도 모른다. 나는 그 전처럼 부라나케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참 옆에 앉았다가 온

다. 며칠 전, 애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날이 있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몇 종류의 캔을 차례대로 따도 거들떠도 안 보고 차 밑에 죽은 듯 모로 누워 있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움직이자, 몸을 일으켜 비실거리며 나를 따라다녔다. 할 수 없이 차 그늘에서 쉬게 하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비쩍 마른 몸, 더러운 네 다리며, 세상에 이보다 가련한 고양이가 있을까. 애를 버린 사람, 이 꼴을 보세요! 애가 어떻게 된 지 보세요! “그러니까 왜 안 잡혀?” 중얼거리며 내가 조심조심 손을 뻗자, 고양이는 울상을 하고 일어나 차 옆의 모자원 건물 담벼락에 난 문으로 들어갔다. 곧 쿵쿵쿵쿵 소리가 났다. 쫓아가 보니 등을 움츠리고 토하고 있었다. 지금 죽으려나 봐! 진작 어떻게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울부짖자 멈칫하더니 고양이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울면서 따라 내려갔다. 모자원의 너른 앞마당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 아니예요!” 고양이는 마당에 세워진 차 밑으로 들어갔다. “고양이가 죽어가서 따라왔어요.” 내 변명에 여인은 한달음에 달려와 차 옆에서 쿵쿵 발을 구르며 악을 썼다. “여기서 고양이가 죽으면 어떡해! 개! 개! 나가! 나가!” 그 서슬에 고양이가 차 밑에서 나와 도로 계단을 비틀비틀 올라갔다. 머리가 텅 빈 채, 울면서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여인이 우리를 내몰며 쫓아 올라와 문을 꽁 닫았다. 땀별 내리쬐는 하얀 대낮에 겪은, 그 이상한 꿈같은 일의 충격이 중병 후유증처럼 건지지 않는다.

활동소식 2013년 4월 ~ 2013년 6월



더 행복한 부활절 달걀 만들기 캠페인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달걀은 평균 232개. 이 중 대부분은 평생을 좁은 케이지에 갇혀 알 낳는 기계로 사는 암탉이 낳은 달걀입니다. 1년 중 특히 달걀 판매가 급증하는 부활절 기간을 맞아, 인도적인 달걀 선택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퍼시픽랜드에서 물수한 돌고래, 바다 입수 성공

4월 8일, 퍼시픽랜드에서 불법포획해서 공연에 이용하던 남방큰돌고래 4마리에 대한 역사적인 물수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건강 이상이 염려되는 복순이와 태산이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고, 춘삼이와 삼팔이는 가두리 훈련장에서 방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요 - 반려동물 이야기

경기도 미술관에서 가족체험전 <가족이 되고 싶어요 - 반려동물 이야기>를 5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 연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미술을 통해 높여 보고자 마련된 이 뜻 깊은 자리에 동물자유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계획 발표

서울시 최초 반려견 놀이터가 7월 1일 어린이대공원이 설치됩니다. '2012 희망서울정책박람회'에서 동물자유연대가 제안했던 정책이 9개월 만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시범 운영에 성공해 서울시의 위상과 규모에 맞게 점 점 늘려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 입양동물의 날

버려지거나 학대 받았던 동물들을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입양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입양동물의 날' 행사가 5월 12일 남양주 조이독에서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시원한 강바람 속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행복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거제 씨월드 건립 반대 공동 기자회견

5월 23일, 광화문에서 야생 돌고래 19마리를 수입해서 돌고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거제 씨월드의 돌핀파크 건립에 반대하고, 환경부에 돌고래 포획 및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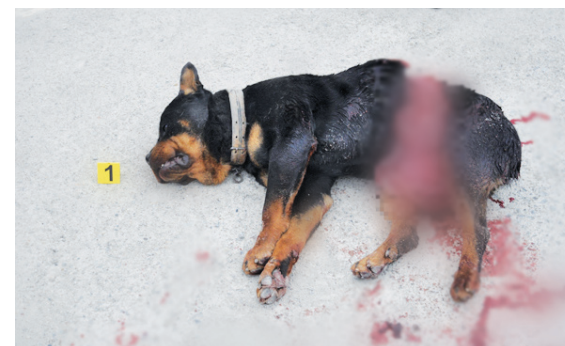
대형 건물 기둥 속에 갇힌 아기 고양이 구조

학교 건물 기둥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고 나간 현장에서 만난 건 높이 5미터짜리 대형 기둥. 이동하다 기둥 속으로 떨어져 탈진에 이른 아기 고양이를 활동가의 끈질긴 노력과 제보자, 건국대학교의 지원과 협조 덕에 이를 만에 구조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대응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도 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과 경찰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토바이에 끌려가던 의왕시 백구 사건, 하남시 독극물 살포 사건 모두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안성 롯데와일러 살해사건, 동물보호법 적용 기소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가해자에게 동물학대죄가 적용돼서 기소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꾸준한 요구와 설득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가해자의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결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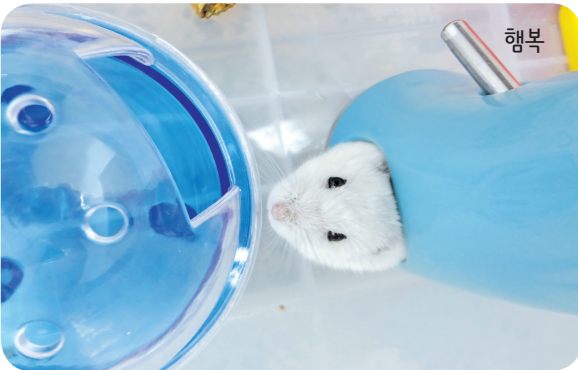
돌고래 방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불법포획 돼 서울대공원과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공연에 이용되다 제주 바다에서 방류 훈련을 받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 삼팔이. 이들의 방류 성공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돌고래 야생방류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땡그란 눈의 작은 천사,
햄스터 친구들과 인사 하세요

글 윤정임 국장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자유연대 복지센터에는 개와 고양이만 있다? NO~~!!
무진장 짓는 개님들과 예민한 야옹님들 틈에서도 꾹꾹한 착하고 아리따운 햄스터 친구들을 소개 합니다~



©김연중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학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 캠페인과 재입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강화 운동과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토록 합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금지하고 농장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실험동물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실험성 있는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불필요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이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락동물 동물이 유흥과 오락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을 모니터링하여 학대 요인을 방지하며,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	--	--	--

★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기간지를 보내드립니다.	★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 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육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계좌 국민은행 806201-04-005468 농 협 015-17-002592 예 금 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는 ‘동물자유연대’의 법인 명칭이며,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